

15/10/17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음 산티

1983/02/15

세계 평화 회의 종료에 관한 사랑하는 아비약트 밥다다의

다정하고 더 없이 귀중한 말씀

오늘 무한한 아버지는 봉사의 도구인, 봉사할 줄 아는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그가 어느 자녀를 보든 그 각각은 그 옆의 자녀보다 더 고귀하다. 그래서 밥다다는 고귀하고 봉사할 줄 아는 모든 영혼의 특질을 보고 있다. 밥다다는 각각의 모든 자녀가 세계 변화라는 과업을 위한 지원의 형상, 드높임의 형상인 것이 기쁘다. 자녀들 모두 밥다다의 과업에 끊임없이 협조하고 있다. 그렇게 협조적이고 쉬운 요기들, 그토록 특별하게 고귀한 영혼들이고 봉사를 위한 도구인 자녀들을 보며 밥다다는 환영식과 아울러 사랑의 황금 꽃으로 자녀들을 축하하고 있다. 밥다다는 각 자녀를 이마에서 반짝이는 보석의 형태, 충족감의 보석, 마음의 보석의 형태로 보고 있다. 밥다다는 또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는 “와 나의 자녀들! 와! 와! 사랑스러운 자녀들! 와! 사랑스러운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와! 와! 고귀한 영혼들! 와!”라는 노래를 부른다. 너희에게는 이처럼 한결같은 믿음과 도취감이 있지 않으냐? 신이 친히 너희 자녀들에 대해 노래를 부르는, 그토록 엄청난 행운을 너희가 누리는 때는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 지금 말고는 없다. 신봉자들은 신을 찬양하여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른다. 너희들 역시 여러 가지 노래를 많이 불러 왔지만, 때로는 심지어 신도 너희 자녀들에 대해 노래를 부르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결코 상상도 못해본 것을 너희들은 육신의 형태로 보고 있다. 너희는 방금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마쳤다. 자녀들 모두 아주 좋은 얘기를 했고 지식의 태양이 됨으로써 너희는 온 사방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순수한 생각, 좋은 염원, 순수한 느낌의 파동도 퍼뜨렸다. 그러나 밥다다는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강연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다. 너희는 나를 동안 강의를 하지만 밥다다는 단 1초 동안 강연한다. 두 개의 단어는 “깨달음”과 “해결”이다. 너희들 모두가 말한 것의 요지는 자각, 즉 깨달음이다. 그들이 비록 영혼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단지 인생의 가치만 이해해도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인간들은 특별히 강력하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이를 깨닫는다면 인류의 종교는 싸움이나 언쟁이 아닌, 사랑일 것이다. “나는 어떤 유형의 영혼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 다음 단계, 즉 인생과 인간성의 기반은 영혼에 달려있다. 이 자각이 있으면 그들은 그때 평화라는 그들 본연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 계속 더 나아가라. “나는 고귀한 영혼이다. 나는 전능한 권위자의 자녀다”. 나약하던 너희는 이 자각으로 강력해질 것이다. 강력한 영혼들과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로서의 영혼들은 원하는 것은 뭐든,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강연의 요지가 단 한 마디 “자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었다. 이처럼 밥다다는 모든 강연을 들었다. 밥다다는 변함없이 자녀들과 함께 있다. 앗차.

봉사에 헌신하는 영혼들 모두, 그리고 여러 지구 (존)에서 온 자녀들 모두, 밥다다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각자 이해한다. 그는 너희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다. 너희 자녀들 모두가 이제껏 보여온 실제적인 증거 전체에 대한 보답으로 밥다다는 너희의 모습과 더불어 너희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축하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변화의 때에 대해 모든 이에게 경고하고 있으니 밥다다를 만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너희의 가족들의 수가 늘면 나이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너희들 모두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 버림은 행운이다. 남들을 전진하게 만드는 것은 곧 너희들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밥다다가 외국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이 나라에 있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가 특별한 자녀들만 사랑한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각 자녀는 밥다다를 위한 마음의 지원이며 머리 위 왕관의 보석이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그의 오른손인, 협조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마음속 아주 깊은 데서 우러난 사랑을 주고 있다.

그저 접촉했을 때 름인 자들을 관계 속으로 데려와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데리고 온 너희들 모두는 그들이 크나큰 행복을 느끼며 전진하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너희들 모두 지금 이때에 봉사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이미 완수된 봉사였다. 바바가 각 지구마다 호명해야겠느냐? 만일 그가 어떤 이름은 언급하고 다른 이름은 빠뜨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유로 모든 지구는 밥다다가 자기들의 지구를 1등의 위치에 둔다고 느껴야 합당하다. 이 나라 출신들과 외국에서 온 자들 모두 지금 현재는 마두반의 주민이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음 산티 바반의 주민인 자녀들, 세계 평화의 강당 (월드 피스 훌)에 와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이르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억하며 머물고 남들에게도 바바를 상기시켜 주고 각각의 행위를 기념비로 만듦으로써 매 밭걸음마다 계속 발전해라. 매 1초1초마다 너희의 실생활이라는 거울에 너희의 자아와 아버지를 비춰서 계속 모든 영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어라. 축복의 공여자, 대 기부자인 그런 자녀들, 끊임없이 충만한 자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닥터 로버트 뮐러 (유엔 사무처장)에게 들려주신 고귀한 말씀 .

봉사에서 너는 전체 모든 역할들 중에서 최고로 고귀한 배역을 맡았다. 너는 어떤 과제에 대한 도구가 되었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고귀한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 밥다다와 브라민 가족 전체의 도움으로 이

생각은 물리적인 형태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생각은 매우 선량하며 너는 아주 훌륭한 계획들을 생각해낸다. 이제 이 계획에 이러한 영적인 힘이 보태지면 이 계획은 계속해서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어갈 것이다. 자녀들 모두의 열의가 계속 밥다다에게 가 닿는다.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머물며 용기 있게 계속 전진해라. 세계 평화의 깃발이 세계 곳곳에 게양되는 것을 너는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니 계속 전진해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이를 낙담시키려고 애쓰겠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의 힘, 하나의 지원을 갖고 움직여 나아가라. 너희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아버지를 너희들의 동반자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며 너희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너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는 아무리 폭풍이 많이 와도 그것들은 선물이 될 것이다. “지각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 이 호칭과 너는 지각에 믿음을 가진 승리하는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앗차.

밥다다가 엉클 스티브 나레인 (가이아나 부통령) 을 만나심 .

네 자신을 밥다다 마음의 옥좌에 앉혀져 있는 가까운 보석으로 경험하느냐? 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마음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 봉사에 대한 자녀의 열의를 보면 밥다다는 기뻐서 너에게 1등을 주고 있다. 너는 밥다다의 눈에 들어있는 보석이며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너를 축하하고 있다.

밥다다가 안티 베티를 만나심 .

새로 탄생하자마자 너는 봉사할 줄 아는 자녀로서 축복 받았다. 너는 경험의 화신이다. 가이아나에 살면서도 너는 세계 봉사를 위한 도구의 화신이며 항상 그러할 것이다. 기억을 통해서 너는 바바의 협조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느냐? 너의 기억은 계속해서 밥다다에게 도달된다. 너의 모든 생각은 계속해서 성공하지 않느냐? 고귀한 영혼인 너의 고귀한 생각 하나로 가족 전체가 높은 지위를 얻고 있다. 너는 수천만 배로 행운아다.

아비약트 밥다다가 세계 평화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디 굴자르를 통해서) 들려주신 다정한 메시지 .

항상 그러하듯이 제가 서틀 리전에 도착했을 바로 그때 밥다다께서는 자녀들 모두에게 다정스러운 드리시티와 더불어 사랑과 기억을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바바의 드리시티에서 강렬한 평화, 힘, 사랑, 희열의 광선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 특질을 다 얻을 만큼 대단히 영적인 드리시티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많이 받고 있는 듯이 느꼈습니다. 밥다다는 이런 식으로 자녀인 우리 모두를 반기시며, “얘야, 너는 모든 이의 기억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억을 가져왔지만 모든 이의 부름도 역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바는, “지금 이때에 와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모두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 모두가 바바를 만나게 될 날도 역시 올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밥다다는 서틀 리전에서 모든 자녀들에 대한 장면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바바는 저에게 장면을 하나 보여 주셨습니다. 바라트에서 신봉자들이 사원에 시바링검의 형상을 만들어 놓듯이 서틀 리전에서 저는 형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형상의 형태는 둘레에 온통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들이 여러 개 쭉 박혀 있는 등근 형태였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들 위에 4가지 유형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빛은 흰색, 초록색, 연한 파란색, 금색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 빛이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하얀 빛 안에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열의”라는 단어였고, 세 번째 단어는 “열성”, 네 번째는 “봉사”였습니다. 바바가 이르시기를, 자녀들 모두 대단한 열성과 열의, 그리고 평화로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서 세계를 위해 봉사해 왔다. 모임에 참석해 있으면서 각 영혼이 얼마나 광채를 발하고 있는지 봐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바는, “나의 자녀들은 지금 각자의 능력에 따라 나를 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온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 모두에게 사랑과 기억을 줘라. 여기에 온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들이 집에 왔다는 소리다. 밥다다는 자녀들의 이 소리를 듣고 미소 짓는다. 너희 자녀들이 집에 왔으니 너희의 권리를 온전히 다 차지하려고 왔느냐, 그저 조금만 차지하려고 왔느냐? 바바가 이르시기를, 대양의 해안가에 왔으니 그저 물 항아리 하나만 채워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 자신이 대양의 마스터가 되어서 돌아가라. 광산에 왔으니 양손에만 갖고 돌아가지는 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밥다다는 세 가지 유형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 유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1. 밥다다는 펜 (칼람) (미디어 분야의 사람들)을 들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연꽃을 (카말)을 선물로 주고 계셨습니다. 연꽃 옥좌에 앉아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말해라, 세상의 타모프라단한 파동에서 떨어져서 변함없이 초연하게 지내고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을 사랑하며 지내라. 너희가 그러한 단계에 안정된 상태에서 펜을 사용한다면 너희의 상호작용은 성공할 것이고 너희는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데서도 역시 성공할 것이다.

2. 와 있는 VIP 자녀들 모두 옥좌는 받지 못했으나 백조의 자리는 받았다. 바바가 이르시기를, 와 있는 나의 VIP 자녀들은 모두 말에 힘을 갖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백조의 자리를 주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과제든 행해라. 너희가 이 자리에 앉음으로써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든 그것이 특질로 가득해질 정도로 너희의 식별력이 높아질 것이다. 너희가 의자에 앉아서 과제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지각을 백조의 자리에 앉혀 놓아라, 그러면 너희가 심지어 세속적인 (로크) 과제를 행할 때에도 영혼들은 계속해서 사랑과 힘을 받을 것이다.

3. 밥다다는 혼신적이고 봉사할 줄 아는 자녀들 모두에게 매우 아름다운 빛의 꽃으로 얹은 화환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빛에는 한두 가지의 신성한 미덕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바가 이르시기를, 나의 이 자녀들은 신성한 미덕들을 전부 다 훈습하고 그것들의 화신이 된 자들이다. 그 보답으로 밥다다는 하나의 힘을 가지고 그 한 분의 지시를 따르면서 봉사를 수행해온 자녀들 모두에게 신성한 미덕으로 얹은 꽃목걸이를 선물로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다다는 “한결같이 행복하게 지내며, 행복이라는 행운을 가진 이가 되어 행복이라는 축복과 보물로 계속해서 모든 이를 가득하게 만들어주어라”라는 밥다다의 이 고귀한 말씀을 모든 자녀들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토록 다정한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랑과 기억을 서로 나눈 다음에 저는 물질세계로 돌아왔습니다.

Blessing: 지식이 많아지고 요기 영혼이 되어 너희가 아버지에게 받아온 보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늘려라.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을 모든 보물들로 가득하게 만들어 왔지만, 모든 보물을 적절한 때 사용하는 자들의 보물은 끊임없이 계속 늘어난다. 그런 영혼들은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지식이 많고 모든 보물로 가득한 요기 영혼들은 먼저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그들은 때에 따라 터칭을 받고 그러면 그것을 포착해서 실행에 옮길 것이다. 너희가 뭔가를 이미 행하고서 단 1초라도 지난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너희는 지식이 많은 영혼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Slogan: 너희의 성질과 아이디어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너희의 사랑에는 차이가 없게 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